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2010)

(비공식 번역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2010년 5월 29일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세계 경제의 중요 성원으로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과학혁신 분야에서 3국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공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의 발전 및 심화가 필수적이며, 3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2009년 10월 10일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에 담긴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현존 협의체의 범주 안에서 과학혁신 분야의 3국간 상호 존중, 상호 이익, 상생(win-win) 발전 정신으로 과학 혁신 분야의 3국 협력을 조율하고 뒷받침하며, 3국이 공동으로 승인한 방식에 따라 공동 관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협력해 나간다.

-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아시아 3국 미래예측 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실제 상황에 비추어 투자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우리는 3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방식에 따라 공통 관심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기금프로그램 마련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 전염병 통제와 임상연구에 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중보건 개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오염 예방 및 통제, 유해 폐기물과 전자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관리, 그리고 작물연구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에 관한 3국 협력을 적극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한다.
- 정보통신 분야, 특히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4G 이동통신 표준 및 인터넷 보안에 관한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한다.
- 과학기술 증진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자연재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장마, 가뭄, 수해, 기상재난 및 지진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2010년부터 청년과학자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여, 3국간 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교류협력 및 과학의 대중화에 민간기구가 참여토록 지원한다.

상기 언급한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혁신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관련 3국간 기존 협의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3국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새로운 협의체 및 협력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과학기술 수준과 3국내 사회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공동 대처하며,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